

2019. 9. 18

음식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관련 Comment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454-4874
 6414@meritz.co.kr

RA 최윤희
 02. 6454-4888
 yoonhee.choi@meritz.co.kr

Comment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최초 확진. 추가 확진 여부와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확대가 돼지열병의 조기 진압과 지역 확산에 따른 우려 증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17일 양돈 유통도매가격(탕박)은 5,975원 기록하며 전기말 대비 40.9% 상승. 주요 양돈업체별 양돈 채고는 이지바이오 736억원, 선진 497억원, 팜스코 245억원으로 돈가 40.9% 상승 감안 시 채고 평가이익 증가 효과는 연기준 영업이익의 31.7%, 41.2%, 41.3% 예상

돼지열병 발생 개요

9/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해당 농장에서 모돈 5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9/16일 18시 검역본부에 신고, 17일 06시 30분 정밀검사 후 ASF로 확진. 신고접수 직후부터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 시행 중.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에서는 전파 미발생 확인.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농장 2개 농장까지 총 3개 농장 3,950두 살처분 조치 완료. 17일 06시 30분을 기점으로 48시간 양돈관련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nadstill) 발령. 17일 오후 확진 판정된 파주시 농장에서 50km 떨어진 경기도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의심 신고 접수, 18일 검사 결과 발표 예정

돼지열병 발생 후 양돈업 동향

경기도는 한강 이남 지역인 안성, 천안 등이 주요 양돈 사육지기에 때문에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파주시라는 점은 안도 요인. 예상되는 돼지열병 전파요인은 두 가지로 ① 야생멧돼지, ② 양돈/사료 운송 차량 추정 중. 전파요인이 멧돼지일 경우 한강 이남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 양돈/사료 운송 차량일 경우 이동중지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 아직은 확진 초반이기 때문에 추가 확진 여부와 경기 남부권으로 확진 발생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